

김종대(진영 대창초등학교 4학년 은사) 1차 구술

1. 구술자: 김종대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5월 27일
5. 구술장소: 서울 은평구 구술자 자택
6. 구술분량: 09분4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초등학교 4학년 담임선생님이 기억하는 제자 노무현

구술자 : [제가] 사범학교 삼(3)년을 졸업하고 진영 대창학교, 노무현 대통령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로 첫 내가 선생 발령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담임했어요. 그래서 내 첫 선생으로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반 애들을 내 거의 다 안다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면담자 : 당시에는 그 대창초등학교가 아주 큰 학교였나요?

구술자 : 어, 그때는 김해군인데, 김해군에서 두 번째 가는 학교, 김해읍에 큰 학교 있고 그 다음에 대창학교가 두 번째로 가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학생 수는 그때로서는 한 천팔백(1,800) 명, 천팔백(1,800) 명 되는데, 학교가 참 커가지고 교실도 모자라고 이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교실 남아돌겠지만도, 학교는 참 컷습니다.

면담자 : 천팔백(1800) 명 되면 그럼 한 학년에 한 삼백(300)명 정도 학생이 되었던 건가요?

구술자 : 음, 그렇지. 저기 그때는 보통 네(4) 반.

면담자 : 아, 네 반.

구술자 : 네 반이었는데 그때 학생 수는 마, 칠십(70) 명 이상. [웃음]

면담자 : 한 반에 칠십(70)명 이상이요?

구술자 : 어떤 반은 구십(90)명. [웃음] 저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4)학년 이(2)반, 내가 사(4)학년 이(2)반 담임이고. 근데 사(4)학년 이(2)반이 제일, 내 반이 학생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면담자 : 그 당시에도 대통령님 좀 키가 작은 편이었나요?

구술자 : 음, 그렇지. 제일 앞쪽에 [앉아있던] 둘이 또 비슷비슷했다고. 키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때 보면 얼굴이 아주 창백했어요.

면담자 : 창백했다고요?

구술자 : 참 몸이 안 좋았다는 거지. 몸이 안 좋고, 또 그러면서도 활동적이고 참 잘 했는데 어떤데 운동이 좀 약했지.

면담자 : 아, 체육은 잘 못하셨어요?

구술자 : [웃음] 체력은, 저 키도 작고 몸도 그때 창백했어요. 그런데 그, 인자 삼(3)학년 성적은, 성적이, 공부를 제일 잘했고. 또 그 다음에 발표력이, 아주 조리 있게 발표를 잘했어요. 공부하는 자세도 좋았고 또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그 반에서. 키가 작기 때문에 급장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은 인자 그 당시 사(4)학년이 되면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사(4)학년에서 어린이회가 있었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마다, 매주 토요일 날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린이회장이 됐다, 어린이회장. 그 반에서. 어린이회하면서 인자 연구부장도 [말고]. 연구부장이란 애들 학습시키고 하는 연구부장이 있고, 뭐 또는 생활부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 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연구부장이고 어린이회장이니까 아침 일찍 와요. 그, 인자 십(10)리 길을 걸어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숙제, 자습문제를 내줍니다. 칠판에.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사(4)학년 구구셈(구구단),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문제를 쪽 올려놓으면 인자 학생이 와가지고 교실에서 선생이 오기 전에 자기들 자습을 시키고 이랬어요. 또 그러고 어떤 애들 보면 그때 사(4)학년들은 구구셈도 잘 못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인자 자기가 연구부장이니까 애들 다 가르쳐주고 이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공부하게끔 만들거든요. 스스로 그리 많이 했어요. 잘 가르쳐 줬어, 보면. [웃음]

그리고 내가 하나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기 자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봐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일어나가(일어나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뭐냐?' 이래하니까 어떻게 해서 자석이 발명되었느냐,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래 물어요. 아, 그거 내 모르겠데.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그럼 너는 알겠지?' 카니까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나 대신에 발표를 해라' 그래 발표를 해요. 그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어느 사람이 쇠지팡이를 가져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그 쇠지팡이가 돌에, 바위에 붙더라. 그래서 인자 발견했는데 '너 어디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그때, 그때 중학생이 읽는 <학원>[이라는] 잡지 있어, <학원> 잡지. <학원> 잡지를

보고서 했다는 거야. 초등학교 사(4)학년이 벌써 <학원> 잡지를 읽는다 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면담자 : 아, 그 <학원>이라는 잡지가 중학생용인가요?

구술자 : 그렇지 중학생, 고등학생용인데 그거를 갖다 읽었으니까. 그래 그거는 누가 사준지 모르겠는데 자기 형이 사줬지 싶어요.

면담자 : 아, 그 형님이나 가족 분들을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구술자 : 거는 내 안 봤는데 내가 인자 가정방문, 노무현 대통령 그 마을이 참 빈촌이었어요.¹⁾

면담자 : 아, 거기 진영 동네에서도 좀 거기가.

구술자 : 네, 그렇지. 그 왜냐하면은 비만 오면은 물이 들어요. 요새는 지금 인자 뭐 요번에 쌀농사 뭐뭐 하고 오리 키우고 농사²⁾한다 하지요. 그 전에는 뭐 일 (1), 한 이(2)삼(3)년마다 거는 마 물 다 쓸으면 저게 완전히 벼농사를 망친다니까. 왜냐면 물이 들면, 낙동강 물이 범람하면 그 물이 들면 전부 다 물바다가 돼, 물바다. 그런데 요새는 저 낙동강 근처에 인자 큰 그거를 해놨어요. 물을 퍼내게끔 시설을 해가지고 인자는 물이 안 들게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마는. [예전에는] 물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자 그 동네가 가난했는데 노무현이는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어머니가 부지런해가지고 항상 옷을 깨끗이 입고 와요. 그 당시 애들 거 보면 손이 새카매요. 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학교 뒤에 냇가 가서 손 씻으라 하거든. 씻고 보고 검사하고 이라는데 노무현이는 깨끗해요, 손이. 그래 보면 어머니가 참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옷도 깨끗하고. 또 노무현이는 체벌 같은, 단체로 벌을 설 때는 노무현이도 할 수 없지. 인제 벌을 서야 되지. 그러니 그때 그런 걸 기억했는 모양이지. 그래, 나를 호랑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참 똑똑했어요. 하나 가르쳐주면 뭐, 열 개를 아는 그런. 그래 똑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 그때 가정방문을 갔는데, 미리 내 학생들한테 내가 언제쯤 가정방문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인자 학생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그날 내가 가정방문을, 봉하마을을 가정방문을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 있는데 내하고 둘이서 혼자 마루에 앉아 가지고 '니 공부하는 거 어땠노?' 하고 여러 가지 둘이서 꽤 앉아 이야기했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 '어머니,

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시행한 친환경 오리농법을 말함.

아버지 어디 갔나?’ 하니까 과수원에 어디, 인자 봉하 뒷산에 뭐 차도로(찾으러) 막 다닌 모양이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내한테 아주 미안한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인자 앉아, 둘이서 앉아가 이야기하다가 내가 또 그 옆에 노무현이 집하고 좀 떨어진 데 또 동네 있어 거기도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 한 십(10) 분쯤 앉아 이야기했을까? 뭐, 공부하는 거 어떻나, 형이 어떻나, 어머니, 가정, 집안 묻고, 이래서 내 [갔다]온 적이 있어. 그래 거 가정방문 [했을 때는] 컴컴했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 그래 인자 다른 여선생 한 분하고 같이 오는데 밤이 돼가지고 아, 겁이 나더마는. 근데 거 노무현이는 그래 다녔으니까. 상당히 좀 쓸쓸하더마는. 그래, 마침 [나는]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밤에는, 거 컴컴한 밤에 오니까 그 좀 기분이 안 좋던데.

■ 구술자 주요이력

1936. 출생

1956. 부산사범학교 졸업, 경남 김해시 진영 대창초등학교 부임

1970. 교사직 사직

1974.04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974.07 징역 20년형 선고

1982.03 형집행정지로 석방

1985. 4월혁명회 회원 가입, 이후 사무국장 역임

1956년 부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진영 대창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첫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노무현이었다.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8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다시 만났다. 노 대통령도 알아봤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진영중학교 10년 선배이기도 하다.